인생 2모작 "힐링캠프로 마음치유"

문경세계명상마을, 12월 1~3일 제1회 중년명상힐링캠프 성료

전국서 100여 참가자 참여
각산 스님 "마음 돌리면 행복"
선지식들의 마음공부 듣고
힐링프로그램 체험도 진행

문경=노덕현 기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힐링캠프에서 편하게 쉬시면서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

중년들에게 인생 2모작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청년명상힐링캠프를 통해 힐링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문경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만 40세부터 55세까지의 중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중년명상힐링캠프를 개최한 것.

캠프에서는 명상마스터인 각산 스님과 마가 스님 등이 강연과 대화, 비베카 킴 인도 비베카난다요가대학 한국지부 대표의 요가체험, 선무도 체험 및 숲속 걷기명상 등이 진행됐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직장인인 점을 감안해 중년명상힐링캠프는 자유로움 속에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배정했다. 스마트폰을 지참할 수는 있도록 하되 되도록 보지 않도록 하면서 프로그램 참여도 자율에 맡겼다. 또 올해 개설된 꾸띠에서 스스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1일 진행된 입재식에서 선원장 각산 스님은 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 이라며 "여러분이 이제 50 60 70을 맞이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그 다음을 만들어 내는 씨앗이 된다. 마음을 쓰는 법, 지혜를 얻는 법을 단순하게 알려드리면 '고요히 멈추면' 된다"고 조언을 건넸다.

이어진 각산 스님의 호쾌한 법문에 참석한 대중들은 귀를 기울였다. 스님은 보다 쉽게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를 알려줬다. 스님은 "희망이 없는 자는 천하재벌도 무너지고, 희망이 있는 자 어떠한 궁핍함 속에서도 힘을 낸다. 괴로울 때는 '아, 괜찮다' '나 잘할수 있어' '마음 되돌려 쓰기' 이 세 가지를 되새기라"고 했다.


걷기명상을 직접 지도 하고 있는 선원장 각산 스님과 이를 지켜보는 캠프 참가자들.

스님은 미얀마수행센터에서 지낼 당시 선배스님이 보여줬던 행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 수행센터에서 선배스님과 씻는데 수건이 너무 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에게 '행님, 수건 좀 바꾸소. 냄새나고 다 끊어진걸 머 이런걸 씁니까' 라고 하니 '불편한 게 편한 거요' 라고 들었어요.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이후 가는데마다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몸뚱이를 천하게 굴리는 자는 가는 데마다 호텔이고, 평소에 호텔에 사는 자는 가는 데마다 움막인 겁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갈애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곳이 행복인 겁니다."

참가자들은 첫날 걷기명상과 함께 별빛보기 등에 이어 명상마을 측에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고, 둘째 날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의 지도 하에 마음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문경세계명상마을은 청년, 중년명상힐링캠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시수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한국전통 간화선을 체험하는 '선칠(禪七 · 7일참선) 수행' 을 비롯하여 20일과 30일 중기 수행도 진행 중이다. 054-1577-4327

연화원 창립 20돌…"장애 · 비장애 함께하는 세상 발원"

장애인전법 중심도량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창립 20주년

1993년, 작은 수화 법회로 출발
2003년 법인…문화관 건립 꿈꿔
12월 17일, 자비나눔 마당 개최

장애인전법 중심도량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대표이사 해성)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연화원의 시작은 작은 수화법회다. 1990년 전후로 출간된 일반 수화집에 수록된 불교 수형이 서너 개가 전부임을 확인한 해성 스님이 팔을 걷어붙이면서다. 1993년 2월, 서울 석촌동(당시 포이동)에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도량을 꾸렸고, 2003년 법인으로 거듭났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연화원은 장애인 전법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 〈자비의 수화교실〉(1999)을 발간했고 이는 11년 후인 2010년, 1127개의 수형을 담은 국립국어원 편찬 〈불교 표준 수화집〉 출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사찰은 물론 관공서조차 휠체어 경사로 하나 구비되지 않던 시대, 거동이 힘든 중증지체장애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 차량을 준비, 산사순례를 다녔다. 1997년, 청각장애인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 면허취득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법인 후에는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발굴했다. 〈금강경〉 〈법화경〉 등 다양한 경전을 점자로 제작해 보급하는데도 앞장섰다. 최근에는 종단본 〈불교성전〉 점자 제작에 한창이다. 최근 3권이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7권까지 이어진다.

쉼 없이 달려온 지 20년. 해성 스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1996년부터 참여한 연등회 행렬을 꼽았다.

해성 스님은 " '장애인불자들이 수십만 명이 즐기는 연등축제에 참여,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연등을 밝힐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순간"이라면서 "지금도 장애인불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연중행사"라고 말했다.


연화원이 마련한 문화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불자들 모습.

지금 연화원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복합 복지관 마련을 꿈꾸고 있다. 1층은 카페 겸 장애인 생산용품 판매점, 2~3층은 지체 · 시청각 장애인 전용공간, 4층은 의료시설, 5층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마련하고 싶다. 해성 스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수익창출, 문화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언젠간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꾸준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연화원은 20주년을 축하하는 특별한 법석을 마련한다.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수어사랑 음악회 및 자비나눔 한마당' 을 개최한다.

혜성 스님은 "장애와 비장애의 편견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연화원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농협 100025-55-001517 / 신한 100-024-654090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임은호 기자

"주어사지 정비해 공공성 증대시켜야"

불교역사제자리찾기, 12월 6일 주어사지 보존 관리방안 세미나 "역사문화 교육장 활용" 기대도



주어사지 발굴 후 절터 보존 방안에 대한 고견을 나누는 학술세미나에서 주어사의 불교사적 의미를 규명하고 발굴조사 성과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는 12월 6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역사바로세우기 학술세미나-주어사지 보존 관리방안' 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기도 여주 주어사의 한국불교사적 의의(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조선 불교사의 관점에서 본 주어사(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여주 주어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본 유적의 성격(김진덕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실장) △여주 주어사지 종합정비 침 활용방안(박태연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이 발제됐다.

발제에 의하면 주어사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물과 유구를 통해 주어사지의 중심운영 시기는 조선시대 중기부터 후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어사지는 접근이 어려운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명문기와편과 양질의 백자편 등이 확인됐고 반출된 해운당대사탑비 및 위암당대사 승탑 등을 통해 조선 중기 사세가 작지 않은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불교계의 소극적인 대처와 방관으로 이웃종교 발상지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간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발굴이 마무리된 주어사지에 대한 종합정비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태연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천주교 발상지이자 불교 사찰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표조사가 이뤄진 5기 건물지 시 · 발굴조사 후 훼손되지 않도록 수목과 사역 정비 △진입로 · 탐방로 재정비로 신도 및 탐방객들의 접근 용이로 사역 이미지 향상 유도 △전통사찰 터로서 문화재 중심 역사문화교육과 불교, 천주교, 유교에 대한 종교문화 체험의 장 계획 등을 제시했다.

박태연 교수는 "주어사지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편의성과 공공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기본정비계획을 수립, 주어사지에 대한 가치 고양과 자랑스러운 상생개념의 문화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앞서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2021년 8월 광주시가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잇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을 조성한다는 발표 이후 비구니회를 중심으로 전국불교단체가 모여 불교여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숨가쁘게 달려왔던 3년간의 일들을 회고하고 "나비 날개짓이 돌고 돌아 태풍을 일으키듯이 주어사지에 대한 불자들의 작은 역사의식이 종교편향에 대응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는 '비대면 공부모임' 을 통해 한반도 종교역사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종교 관련 행정 위법 사례(11월 27일, 29일, 심민석 동국대 법과대학 대우교수) △종교 갈등의 이유, 그 종교학적 분석(12월 4일, 이찬수 인권평화연구원장) △종교 갈등의 극복, 그 불교학적 대안(12월 6일, 이찬수 인권평화연구원장) △난상 토론(12월 13일,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등으로 진행된다. 공부모임 카카오채널 채팅방(open.kakao.com/o/goU94LTd) 010-2528-8438 임은호 기자

봉은사, 김장 8000포기로 자비나눔 실천

12월 2일, 경내서 개최…지역기관 등에 전달도



봉은사(주지 원명)는 12월 2일 경내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2023년 봉은사 자비의 김장나눔' 를 열고 80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사진〉

봉은사 신도와 종무원, 산하기관 종사자 및 봉사자들은 향적원 앞마당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평창에서 공수한 고랭지 절인배추를 함께 버무리고 포장하며 바삐 움직였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소외이웃, 지역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단체 등에 전달됐다.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나눔의 동참한 단체도 눈길을 끌었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해 불우이웃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봉은사는 매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사 봉은(대표이사 원명)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 나눔을 실천하며 부처님 가피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임은호 기자

"'진정한 자유 여정' 여성 출가학교로"

수원 봉녕사, 제1기 여성 출가학교 참가자 모집

수원 봉녕사가 지친 현대 여성들의 삶에 등불을 밝히고 진정한 자유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첫 여성 출가학교를 운영한다.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 삶을 점검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출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 출가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봉녕사(주지 진상)가 내년 1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제1기 여성 출가학교' 에 입방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한 달간 봉녕사에 머물며 한국 전통 승가의 수행과 삶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서류 · 면접 심사 합격 후 입산하며, 희망자에 한해 삭발식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고불식, 삼귀의 오계 및 팔관재계를 수지하고 발우공양, 사찰 예절, 목탁 치는 방법 등을 배운다. 매일 조석예불 및 사사불공, 운력, 실참수행 등 일과를 수행하고 부처님 생애와 초발심자경문, 기초교리 등 교리 수업도 받는다. 삼보일배와 차명상, 요가, 싱잉볼, 사찰음식 특강, 선지식 초청법문, 2교구 본사 용주사 성지순례, 화성행궁 산행, 자비도량참법 기도 등 특별프로그램도 곳곳에 배치해 한국 승가의 생활 전반을 경험할 수 있다.

대중생활에 지장 없는 17세~50세 여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110만 원이다. 고교생, 대학생, 봉녕사 불교대학 졸업생은 10만 원 할인된다. 접수는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입학지원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증명사진,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해 봉녕사 홈페이지(www.bongnyeongsa.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합격자는 1월 17일 봉녕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20명을 선정한다.

봉녕사는 "참가자들에게 봉녕사 여성 출가학교는 출가 공동체생활을 통해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 온전한 수행자로서의 나와 마주하게 되고,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출가 체험은 오늘날 같은 출가자 격감 시대에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발심출가' 라는 가장 멋진 선택을 할 용기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탄자니아 농업대 5회 졸업식…81명 배출

12월 1일, 일화 스님 등 참석 수석 졸업생엔 한국 유학 기회 "한국 불교가 탄자니아에 희망"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다섯 번째 졸업식을 갖고 탄자니아 미래를 이끌 불교인재 81명을 배출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은 12월 1일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제5회 졸업식을 개최하고 8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사진〉

이날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자 아마니(Elijah Amani Abel)에게는 한국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다. 엘리자 알마니는 동국대 한국어교육원 입학을 준비중이다. 엘리자 아마니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훌륭한 선생님들께 3년간 공부를 배운 것도 감사한데, 한국 유학까지 가게 돼 너무 큰 행운을 얻은 것 같다"며 "한국의 훌륭한 농업기술을 배워 탄자니아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6년 개교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일반농업, 원예학과, 축산학과 등 3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전교생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은 이번 졸업생까지 총 410명을 사회로 배출시키며 탄자니아 농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학교에서 위탁운영하는 다르에살람 세종학당을 통해 인근 중고등학생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도 펼치고 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에서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내 법당과 아동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개교 당시 한국에서 모셔간 비로자나부처님은 아직 독립된 법당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강당에 모셔져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불사로 비로자나부처님을 법당으로 옮기고, 학생과 인근 주민들에게 한국불교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홈페이지(http://dreaminus.org) 참조. 02-737-9595 김내영 기자

"불교복지 발전 이끈 헌신 감사합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2월 5일 제2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올 한 해 사회 약자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진우 · 대표이사 묘장)은 1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시상식에서는 천안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 연화보호작업장 시설장 구견 스님,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자비마을 원장 묘전 스님, 김향림 시립죽전어린이집 원장, 허종국 홍천군장애인복지관장이 사회복지시설단체운영 부문 총무원장 표창을, 이창익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이현용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과장, 한은경 자광원 사무국장, 박유선 서울특별시립24시간 게스트하우스 영양사, 이미경 금정구노인복지관 부장이 불교사회복지발전공헌 부문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는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불교사회복지 발전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김내영 기자